

民生경제 안정과 南北統一 기원

김문수 경기도지사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 참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민생경제 안정과 남북 통일을 빌었다. 김 지사는 5월24일 경기도 화성시 조계종 제2교구 본찰 용주사에서 열린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에 참석해 헌화와 헌향으로 인연을 맺었다.

김 지사는 이상득 국회의장, 고희선 국회의원, 최영근 화성시장, 종허 큰스님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복의식을 올리고 부처님 오신날의 큰 뜻을 기렸다.

김 지사는 "부처님은 어둠을 해매는 우리를 비추주는 빛"이라며 "오늘은 스승인 부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날이다. 불교신자만이 아니라, 진리를 찾는 기독교인, 천주교인, 모든 종생이 노래하는 기쁜 날"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려주시고, 부부사이를 좋게 해주시고, 이웃끼리 화목하게 해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아, 남북통일을 빌다. 1,200만 경기도민들의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게 해달라. 성불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 화성시 조계종 제2교구 본찰 용주사에서 열린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대법회'에 참석해 헌화와 헌향으로 인연을 맺었다.

의정부경전철 6월 착공 들어가

정거장 명칭 심의·결정 마쳐 모두 15개역

의정부시 경전철추진사업이 14년만인 6월 중순에 착공된다.

지난 1993년 고질적인 구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된 의정부 경전철사업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두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하자 문제 등으로 법적 소송 끝에 2004년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2007년보다 4년이나 늦어진 2011년 개통을 목표로 다음달 중순 착공에 들어간다.

시는 지난해 4월 의정부경전철(주)과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이달말까지 실시계획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을 거쳐 건설교통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면 6월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가 시작돼 2011년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다.

시는 5월18일 지명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정부경전철 정거장 15개소에 대한 명칭을 심의·결정했다.

이번에 심의·결정된 의정부경전철 정거장의 명칭은 개발된 신도시 조성 및 함께 문화기는 문화유산을 살리고 경전철 이미지 향상을 위해 정거장이 입지할 15개소의 지명조사 결과를 지난해 12월27일 정거장 명칭의 제정계획을 수립, 올해 1월16일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의 자문을 받아 동 지명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결정했다.

2011년 개통될 경전철은 발곡(장암지구)~회룡역~발곡~의정부역~시정~흥선~중앙~동오~새말~경기도제2청사~효자~곤재~아름~송산~탑석~차량기지 등 총 15개 정거장을 잇게 된다.

회룡역에는 지하철 1호선과 환승할 수 있고, 곤재역에서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를 운행하는 수도권 급행간선버스(BRT)를 이용할 수 있다.

당초 의정부 신시가지 백석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검토됐으나, 하천법률 등의 우려가 있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도와 한강유역환경청의 의견에 따라 신흥로와 시민로 등 도로 노선을 따라 운행되도록 노선이 변경됐다.

총사업비 4천750억원의 GS건설 등 10개 민간기업으로부터 2천47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국비 874억원 등 2천28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마련할 계획이다.

최첨단 완전 자동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될 경전철 차량은 독일 지멘스의 VAL208 차량으로 철재 바퀴가 아닌 고무 바퀴를 사용해 소음과 진동이 적다.

2량 2편성(승차인원 236명)으로 운행되는 경전철의 1일 이용자는 7만9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2011년 개통초기 출퇴근 시간대에는 15편성 3분 간격으로, 2016년에는 18편성 2분30초, 2025년에는 21편성 3분17초로 운행간격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임은 2004년 9월 합의했던 981원(전 구간 공통)을 기준으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11년 재조정 할 방침이다. 시는 10년(초기 5년80%, 이후 5년 70%) 동안 의정부경전철(주)에 운임수입을 보장해 줄 방침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민생치안 유공자 표창장 수여식

의정부경찰서 남기전 경사 등 4명



의정부경찰서(서장 신정배)는 5월22일 오전 서장실에서 경사 남기전 등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신정배 서장은 훈시를 통해 "우리 모두의 역량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민생치안에 앞장서고 앞으로도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한지 고구마 심어 불우이웃돕기 앞장

의정부시 가능3동 새마을지도자 남녀회 원 50여명



의정부시 가능3동 새마을지도자 남녀회 원 50여명은 5월18일 1천200여평의 공한지에 고구마 모종을 심어 수익금으로 연말 관내 어렵게 살고있는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고구마밭 개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작년에는 도로변 공한지에 고구마를 심어 약500kg의 수확을 얻어 그 수익금 60여만원으로 불우이웃과 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능동 581-22번지 과수원부지 1천200여평과 성문주유소 앞 50여평의 공한지에 지난달 회원들이 모여 개간을 실시했으며, 18일 오후2시 회원들은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고구마 모종을 심었다.

보편적 인도주의 정신 실천 봉사단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설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밝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설립 60주년 기념식이 5월21일 오전11시 수원시 호매리38층 그랜드볼룸에서 우봉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적십자 여러분은 목표를 늘 초과 달성해 주시고, 초과 봉사를 함으로써 초과 만족감을 느끼시고, 칭찬을 받는다"며 "목표보다 성과를 이루시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박수를 보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우봉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장석준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케이크 절단식을 가졌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청소년 보듬기

의정부남자청소년쉼터 5월21일 開所

의정부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출 및 폭력 등 각종 청소년문제가 더 이상 방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삶에 지친 가출 청소년들에게 인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남자 청소년쉼터를 5월21일 오후2시 김문수 의정부시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이 시설은 가출 청소년들의 일시 보호 및 선도를 위해 의정부시가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시대지기에 위탁한 시설로 청소년관련법에 의해 개소하게 됐다. 시설이용 및 전화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은 의정부남자청소년쉼터(829-1318)로 문의하면 된다.



총면적 339.93㎡ 규모의 쉼터는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북부 축산업에 6백80억 투입키로

포천시 축산이주·첨단 R&D단지 조성 500억원 투입계획

경기도는 5월21일 실국장회의에서 올해 34억원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총 6백80억원을 투입해 경기북부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우선 포천시가 추진 중인 축산 이주단지 및 첨단 R&D단지 조성 관련에 5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2청사 관계지는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이주단지와 첨단 R&D단지 축산신축, 축산연구소, 축산처리장 등을 9만여평에 조성할 계획"이라며 "도내 낙후 지역인 북부지역의 산업 불균형을 해소하고 축산업의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향상하고자 한다"고 단지 조성 목적을 설명했다.

도는 악취 및 해충이 발생하는 농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매년 30억원씩 총 1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축산 체험 목장 'milk school' 등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농촌 체험 관광지를 10여 개소 늘리기 위해 20억원을 배정했다.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

한 '아름다운 농장'도 100여 곳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도 10억원을 투입한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 북부지역 축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세부 대응책도 제시했다.

먼저 수입 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팔리기도 해 소비자의 신뢰가 이미 떨어진 상태인 점을 감안

해 유통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인증과 도축 또는 가공된 축산물의 생산, 이동, 판매 등 전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농가 단계까지 확대 도입키로 했다.

인삼미추연우, 양령계군한우, 도드람포크 등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한우풍경'과 '한우100년', '청미원포크' 등 북부지역 축산 브랜드를 지역 단위로 묶는 광역화를 통해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또 체계적인 가축 개량과 사료 성분분석, 사육기술 등 농가 맞춤형

지난 2일 한우펀드 양해리서 체결 조인식이 끝난 후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 한우 브랜드인 '한우백년' 한우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있다.

이미숙의 전통춤이야기 ⑤

학연대학합설무

고려시대 학무와 연화대무가 조선시대 궁중정재로 정착된 춤

학연대학합설무는 1971년1월8일(1993년12월16일 명칭변경)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학연대학합설무보존회(인정일 2001년 2월15일)에 의해 서울지역에서 전승되고 있으며 이용규(67·무용, 학제작·1971.1.8) 보유자와 손경순(52·무용·1996.2.1), 홍용기(48·무용·1996.12.10) 조교에 의해 전승되고 있다. 학연대학합설무가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유는 학무와 연화대무는 고려때부터 전래되어 조선시대에 궁중정재로 정착된 춤으로서 내용과 형식이 풍부하고 예술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학연대학합설무란 조선 전기 궁중에서 악기를 쫓기 위해 배풀던 의식 다음에 학무·연화대무를 연달아 공연하는 종합적인 무

대를 말한다. 학무는 임금을 송축하기 위해 학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 고려때부터 궁중의례에서 행해 왔으며, 새의 탈을 쓰고 추는 춤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다. 연화대무는 두 여자 아이가 연꽃술로 태어났다가 왕의 덕망에 감격하여 춤과 노래로써 그 은혜에 보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몸에 학의 탈을 쓴 두 무용수가 춤을 추다가 미리 설치된 꽃봉우리 두 개를 부리로 쪼면, 연꽃이 벌어지며 여자아이가 튀어나오고 학은 놀라서 뛰어 나간다. 그 후 두 여자아이가 추는 춤이 연화대무이다. 공연상 두 춤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오랜 세월 전승되어 왔다. 반주음악으로는 세령산, 삼현도드리, 타령이 학춤을 출 때 사용되며, 연화대무에서는 궁



중음악반을 사용한다. 학연대학합설무는 동물과 인간과의 교감체계를 표현한 독특한 춤으로 예술성이 높고,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간직하고 있어 높은 가치가 있다. ()은 나이, 인정보야, 인정일 임.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